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1월 7일 (제112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백지에 쓰세요

우리 성도인 어느 의사가 제약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라도 있는 자는 도무지 순순히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의 견과 주장이 강해서 일을 관철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학부출신들이나 고졸 출신은 자기 말을 순순히 수용하며 자기가 추진코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더라고 했다. 그는 내게 하소연 끝에 '백지에 쓰는 게 나아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건축업자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뜯어내고 고치는 것보다 아예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다. 아예 예수의 '예' 자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교회 좀 다녀본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은 그들의 어설픈 이론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그렇다. 백지에 쓰는 게 쉽다. 지우는 수고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필로 쓴 종이는 지우개로, 볼펜으로 쓴 종이는 화이트로 지울 수 있지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통에 잉크 한 병을 섞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물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물이 더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나 보다. 성경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 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10:4~5)라고 말씀하심도 그래서 일 게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린 것은 자신을 백지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야 '예'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어느 목사가 타교회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전도 뜻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총회장 목사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총회장 목사님의 뜻이 내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백지상태로 만들었기에 나와 예수님께 절대 순종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8:34).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오직 기도뿐이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집에 들어가 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8~29).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다.

목사님은 박사요,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물을 때면 이렇게 답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나를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식, 경험, 논리를

구하라면 구하세요. 두드리라면 두드리세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어렵게 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에 2시간, 저녁 2시간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예배나 집회가 있는 날은 하루 6, 7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의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있는 것은 오직 기도했기 때문임을 알기에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르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한 것을 보니 기도한 것밖에 없습디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고, 낮의 태양이 뜨겁고 사막의 밤이 너무 추워 기도하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기도하니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기도하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 또한 37년이 되어가는 내 목회에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봉우 이초석 목사

내 삶에 장애물이 없다

버리고 누가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설교는 정말 쉽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쉽다.' 쉽다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니 어려운 것이고. 어려우니 깊이 생각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니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전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어려운 난제들이 풀리는 법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그러니 찾으려면 찾으세요.

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것이요,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오래 하면 상대에 대해 잘 알 수 있지요. 나와 오래 대화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 겁니다. 대화도 해보지 않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 건강하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재정에 어려움이 없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기도원에 무료로 먹이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교회 없이 목회를 하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재력과 지력과 권력 있는 자들이 돕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천문천답이 예수인 것처럼,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내가 유산처럼 여러분에게 남기고 갈 것 역시 기도뿐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오직, 오직 기도뿐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29:10~14)

생각은 네 인생의 뿌리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진리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생각일진대, 생각이 썩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말씀을 이에 빗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우리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뭘니까? 오해(誤解)는 그릇할 오(誤), 풀 해(解)로 잘못 풀었다,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

인식의 변화 없이 미래는 없다

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렘29:11).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라만상을 미리 지으셨고,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롬8:28).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다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옴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한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6:3)고 말씀한 겁니다. 자고로 오해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목마르는데 소금물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마7:8~11)?

엄마는 라면 대신 정성껏 맛있는 밥을 해 주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빨리 안 준다고 성질을 냅니다. 그냥 라면 달라는 겁니다. 엄마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처사지요. 요셉이 땀관장과 술관장의 꿈을 해몽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출옥할 수 있었던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글썄 우리 딸아이가 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오해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얼마 전에 결혼한 딸 내외에게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가져오라고 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지요. 개네들이 아끼고 저축해서 언제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싶어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주려고 그런 건데, 제 속을 모르는 딸아이가 그게 좀 야속했나 봅니다. 아빠는 부자면서 돈 내라고 하느냐고 하잖아요. 보태서 집 사주려고 한 건데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것 때문에 속이 상한 장로님께 제가 “그러니까 자식이지요. 부모 마음 다 아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긴 제가 기른 제자들도 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잘되라고, 더 큰 종이 되고, 더 깨끗한 종이 되라고 야단을 좀 친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떠나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손자들도 가끔 저를 오해합니다. 저는 늦게 들어가도 방문을 열고 “자냐?” 합니다. 그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친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생각을 어찌 압니까? 공부 더하라, 그래서 잘 되라는 제

생각을 말입니다. 잘 돼서 백 년 된 산삼처럼 귀한 존재가 되라는 제 마음을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내 생각에 부정의 싹이 틔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하건만 내 뿌리가 흔들리고 썩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뿌리가 썩어서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변제 제물로요. 이쯤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나 ‘인정도 없으신 분’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

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묵묵히 그 말씀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20~22).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아굽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사40:27).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게 됩니다.

저는 37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단 0.0001%도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습니다.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비록 울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고, 부모 형제, 처자와 친구가 다 떠나고, 온갖 핍박과 환란이 불어도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사 저를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어주셨고, 우리 가정에서 목사 4명이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약해 흔들리면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박힌 자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흔들리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시23:1)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흔들어 놀려 넘치게 주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번성케 하시고, 밭에 소출이 넘치게 하시며, 외양간에 소가 새끼를 줄줄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꿉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거자씨만한 믿음 ::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다

예수님 우편 십자가에 매달려있던 강도는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 상황에서 단 한 마디의 고백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2~43).

인생을 제멋대로 허비하며 죄 가운데 살아오다 그 찻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처지에 놓인 강도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 이제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밖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체념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시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구한 한 마디의 고백,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 마디는 그의 전 인생과 바뀌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영생을 기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살 소망조차 없을 그 순간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도 단 한 마디의 고백으로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생복락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 처해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소유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당신의 전 인생을 팔아 예수님만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최고의 투자는 없습니다. “천

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기억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다고 좌절 낙담하고 있습니까? 취업도 되지 않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습니까? 이 땅이 지옥과 뭐가 다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러다 꼭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시간도,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천만에요.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때는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살아있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음은 내 자유의지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삶이 당신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To Be Succeeded ::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

어느 수요일,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 한창 문제에 치여 심령이 답답하고 피폐할 때였다. 그날 밤 기도를 받은 이후로 ‘이 땀이 한나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때...’라고 기도해 주신 대목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 주님은 나로 밤마다 금식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 그대로를 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내 아픔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나의 잘못과 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음을 깨닫고는 회개하며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주가 넘고 3주가 지났을까! 하나님은 환경과 나 자신을 뒤엎고 있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이 박멸되는 꿈을 꾸게 하셨다.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것들이 사라지며 생수가 터지니 마음이 천국이 되었음은 물론, 육체와 심령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아픔 또한 깨끗이 치유되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과 아픔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경험한 순간이었다.

고통을 겪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해서 항락으로 그것을 잠시 잊으려하거나 아무 능력, 힘도 없는 우상 또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에 도울 힘이 없는 피조물을 찾아다니며 위안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롬5:8).

사방이 막힌 듯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깊은 수렁과 곤고함에 빠져있을 그때는 삶의 끈을 놓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이다. 이 땅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힘써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끝까지 싸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56:11). **이국진 사모**

길 잃은 강아지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강아지의 목줄이 없었다. 강아지 털에서 윤기가 나고 관리가 잘된 것처럼 보여서 절대로 주인이 없는 강아지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 강아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한 분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강아지를 안았다. 주인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셨다. 그분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다.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주인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강아지를 찾았던 것이다. 얼마나 급했는지 마스크도 안 쓰고 찾으러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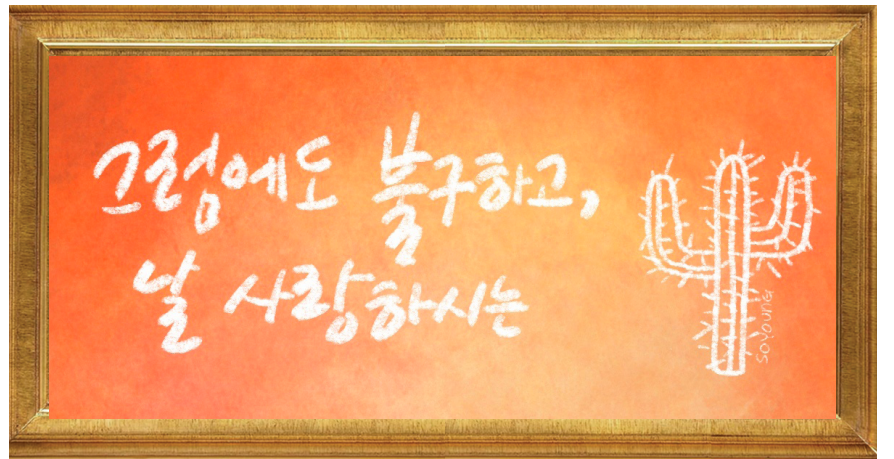
강아지는 집이 싫어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다. 그저 열린 현관문으로 보이는 세상이 신기해서, 내내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서 신나서

뛰어나온 것이다. 그러다 하마터면 길을 잃고 유기견 신세가 될 뻔했다. 유기견이 되면 어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세상에 관심을 두다가, 세상이 재미있어 보여서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간다. 뒷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그러나 집을 나온 강아지처럼 곧 갈 곳이 없는 미아 신세가 된다. 미아가 된 자의 처지가 어찌 될까. 그 결국이 어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아지를 잃은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신다. 어서 돌아오라고 늘 기다리며 애타게 찾고 계신다.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면 아담처럼 에덴을 잃고 만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안식이 있다.

김성일



:: 생명의 말씀 ::

복 있는 사람=행복한 사람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 5,868억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 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내며 위기에 강한 DNA를 심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모범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가 되었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그러면 행복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적 기쁨은 가짜다.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돈이 많으나, 즉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 지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지, ‘부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아니하셨다.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다. 또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잠17:1)고 말씀하신다. 역시 관계를 말씀하신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고급주택에 살아도 다투며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란 것이다. 이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셨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다.

나는 주례를 설 때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 말고 성결을 위해 하라고 권면한다. 누구나 이 남자(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꿈을 꾸지만, 그중 약 50%는 이혼을 한다. 그러나 성결을 위해 서로 돕는 부부는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임택함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귀를 기울이세요 ::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너는 어릴 때부터 꿈쟁이였어.”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꿈을 꾸었으니까요. 그 많은 꿈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주일 아침에 꾸은 꿈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그려집니다.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는 벼가 드넓은 논밭에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흰 세마포를 입은, 키가 훗칠한 분이 따듯하고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즉시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의 생생함과 놀라움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꿈에서 뵈 뒤로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라며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예전 대구예루살렘교회(현 대구예수중심교회) 성전 앞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되시는 김보석 목사님께서 3층 성전의 한 창문을 통해 큰 소리로 “진실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원하신단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특별한 목표가 없었던 저에게 그 꿈은 삶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가 되었습니다.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였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사모라는 축복된 직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대의 끝자락이었던 2001년 6월 25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만을 바라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소천하시던 그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께서 천국에 있는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시는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빠가 천국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일찍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실의에 빠질 수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친히 꿈으로 위로해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두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진리를 믿게 하였고, 갈 길을 보여주셨으며, 슬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저의 죄와 교만을 막으시고 구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시시때때로 꿈으로 계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꿈을 꾸고도 순종하

고 싶지 않아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왜 총회장 목사님께서 ‘꿈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과 고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꿈으로 계시하심이라는 것ですよ. 총회장 목사님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건 주님의 음성과 환상과 꿈의 계시대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그분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꿈으로 계시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지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김진실 사모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조금 흔드시니 온 땅에 지진이 일고, 하나님이 물줄기를 바꾸시니 온 땅에 가뭄이요. 하나님이 물꼬를 심히 여시니 온 땅이 홍수로 울고, 하나님이 작물에 무심

하시니 온 땅이 기근이라. 하나님이 편을 가르시니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니 유리(遊離)하는 자들이 되나니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 죄요, 하나님을 거역함

이 죄요, 하나님을 멸시함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公義)요, 정도(正道)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축복과 사랑을 받고, 안전합니다.

예수중심편집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 간중 ::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동경예수중심교회 박미혜 권사입니다.

일본에 와서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두통을, 돌아가신 박진수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깨끗하게 고침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서동경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8년 만에 다시 서동경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첫 주일에배 때 기도하는데 눈앞에 갑자기 환한 불빛이 그리 넓지 않은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주님께서 길을 비추어 인도하심이라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돋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을 기도하던 영세민 아파트도 상당한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안 믿던 일 본인 남편도 함께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목사님과도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양쪽 귀에서는 늘 웅~하는 매미 소리가 들렸었는데, 목사님은 병명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자며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도 있고 해서 나는 노후현상이라며 낯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배 후 목사님은 귀신을 쫓으며 성도님들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주셨습니다. 오른쪽 귀는 괜찮아졌는데 아직 왼쪽에 소리가 난다고 하자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니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 하였고, 매일 새벽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꿈에 하늘에서 소금 두 포대를 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으로 이제부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패를 막는 곳에 쓰임 받을 것’이라 주시는 것이니 감사로 받아서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라며 감사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음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제각기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순종하며 충성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 모든 기도들의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나처럼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중심교회로 돌아오라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반지 끼우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8년을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믿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거룩한 주일에배를 드리게 되고, 삶에, 마음에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라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박미혜 권사

역전의 명수

1972년 7월 19일 서울운동장(동대문야구장)에서는 제2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이 한창이었다. 창단 5년 차의 신생 야구팀인 군산상고는 부산야구의 명문 부산고를 만나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관중이 운집한 야구장은 양 팀의 응원열기로 가득했다. 8회 초까지 군산상고는 부산고에 3점을 뒤져 있어 승리는 부산고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9회 말, 군산상고의 선두타자부터 출루하기 시작하여 만루 찬스를 만들더니 적시타로 4점 동점을 만들고, 결국 끝내기 안타가 터지면서 5:4로 군산상고는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때부터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과 함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생겨났다.

또한 군산상고의 전국대회 우승은 군산이라는 도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60년대 후반 폐항위기설에 불경기까지 터져 군산시민들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최관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군산상고에 야구단을 만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자 인구 11만의 작은 도시 군산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최 감독은 기업은행 행원이자 야구 감독이었는데 월급은 은행에서 받고 출근은 군산상고 운동장으로 했다. 시민들은 최 감독이 소속된 은행을 살리는 길이 야구단을 살린다는 생각에 기업들은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큰 금액으로 계약하고 개인 사업가 및 가게들, 상인들은 자신의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군산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군산상고 선수들은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고 승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다. 이들에게는 꼭 승리하고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이 있었고,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오늘도 역전드라마를 향한 항해는 계속된다. ‘기필코’ 정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전의 명수가 되어 하나님께 멋진 역전승을 안겨드리자.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해 최고의 역전드라마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송헌혜

